

전남 서부권

휴양 레저 '대둔권'·자연의 메카 '비슬권' 해남은 지금 변신중

4개권역 정비사업 순항

해남군이 추진하는 권역단위 종합 정비사업이 도·농간 교류 활성화와 지역주민 역량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역단위 종합 정비사업은 농촌마을의 경관을 개선하고, 생활환경 정비 및 주민소득 기반 확충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마을을 정주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이다.

해남군은 한국농어촌 공사 해남지사(지사장 김형용)에 위탁해 오는 2015년까지 대둔권역(현산면), 비슬권역(계곡면), 고현권역(문내면), 매화권역(산이면)의 4개 권역을 개발중이다.

대둔권역은 현산면 조산리와 황산리, 구산리 일원에 조성되며 총 5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다목적관 및 복지관, 산촌체험관, 돌담정비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으로 대둔권역은 인근 계곡과 연계되는 휴양레저 레포츠와 자연을 체험하는 이상적인 농촌마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 2010년 착공해 올해까지 다목적관 및 복지관과 운동휴식마당 사업, 산촌체험관, 가로경관 정비 사업을 마무리하며, 2단계 세부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며 201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계곡면 강절리와 당산리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 비슬권역은 42억원의 총 사업비를 바탕으로 목공예체험시설, 골재정비 등 '역사와 전통이 어우러지는 자연의 메카 전원 뮤지엄'을 비전으로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현권역은 문내면 고당리, 고대

리, 고령리, 고전리 일원에 조성되며 올해 1단계 발주를 시작으로 2015년 까지 45억원을 투자해 문화복지센터, 자연저장고, 텃밭 경관조성 등 5개 사업을 추진한다.

고현권역은 2011년 폐교된 옛 영명중 부지를 매입해 농산물 저온저장고 및 주변 공간 정비를 통해 겨울배추의 고장 고현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현권역은 세부설계를 마무리하고 1단계 사업을 발주·착공 진행 중이다. 현재 마을주민들의 주민의지와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지역역량강화사업이 동시에 추진 중에 있다.

올해 진행되는 산이면 예정리의 매화권역은 총 32억원의 사업비로 날마다 새봄의 설레는 매화마을을 위한 기본계획이 마무리 진행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형성하고 있다. 해남 생산능가는 2009년 200곳에서 올해 1000여 곳으로 늘었다.

해남군 관계자는 "천일염과 해수로 짙어 맛이 뛰어나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하루 50건 주문 '인기 폭발' 해남 절임배추

수도권 김장철을 앞두고 해남 절임배추가 인기를 끌고 있다.

28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8일 절임 배추 예약창구를 개설한 군 소평물 '해남미소'에 예약 문의가 이어지면서 100여 건의 실적을 올렸다.

해남군 절임 배추 생산자 협의회도 1주일 전부터 하루 평균 50건씩 주문을 받고 있다. 협의회는 올 김장철 1만 상자(20kg 들이) 판매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절임 배추값은 20kg(7~8 포기) 한 상자 기준 3만원대 중반을

30일에는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세계는 지금'이라는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30~31일에는 목포시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해 일본 방문단을 맞이한다.

30일 신안 비치호텔에서 열리는 환영행사는 일본방문단원들로

다시 새기는 윤학자 여사 '희생의 삶'

31일까지 목포·서울 일원 탄신 100주년 행사

'한국 고아의 어머니'로 불리는 윤학자(일본명 다우치 치즈코·1912~1968) 여사 탄신 100주년 및 'UN 세계고아의 날' 제정을 위한 추진대회가 29일부터 31일까지 3일 동안 목포와 서울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목포시와 서울특별시, 윤학자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회, 윤학자 여사 탄신 100주년 기념 목포시 행사추진위원회(위원장 이정선), 한국승실 공생복지재단 등이 공동 주최한다.

이행 행사 기간 동안 윤학자 여사가 태어난 일본 고치현 오자키 마사나오 지사와 시장 등 일본인 방문단 3000여명이 방문할 예정이다.

29일에는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세계는 지금'이라는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30~31일에는 목포시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해 일본 방문단을 맞이한다.

30일 신안 비치호텔에서 열리는 환영행사는 일본방문단원들로



구성된 일본 요사코이 전통춤과 목포시립 무용단원들의 공연을 선보이고 정중동 시장의 환영사, 고치시장의 답사로 이어진다.

31일에는 목포시 주최로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기념식을 갖고 유엔과 전세계 지구촌 가족을 향해 '세계고아의 날' 제정 참여를 호소한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꽃길가 '이야기 꽃'

함평군 함평천 독을 따라 만개한 해바라기들이 가을 향기를 물씬 풍기고 있다. 함평군은 '대한민국 국화대전' 개최에 맞춰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함평천변에 좁은잎 해바라기 50만 그루를 심었다. <함평군 제공>

"영산강 하굿둑 시설물사업 연내 마무리"

박재순 농촌공사장 현장 점검

영산강 하굿둑 구조개선사업의 주요 시설물이 연말 마무리된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은 26일 '영암·해남 '영산강 하굿둑 구조개선사업' 현장 점검에 나선 박재순 사장(사진)에게 배수갑문 본체 등 주요 시설물을 연말까지 끝내겠다"고 보고했다.

박 사장은 구조개선사업 현장에서 공정추진 점검회의를 갖고 시공사 임원과 함께 공구별 문제점과 극복 방안, 시공 품질향상 및 안전사고 방지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사업은 총 공사비 6586억원을 들여 기존 영산호와 영암호의 배수갑문을 증설하고 연락 수로를 확장,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착공했다. 농업분야 4대

강 살리기 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사업단은 주요 시설물에 이어 남은 시설물도 내년 7월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신안 전통식 햇김 나왔다

겨울철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높은 신안 햇김이 나왔다.

신안군은 지도읍 한 어장에서 전통 방식(지주식)으로 양식한 김을 첫 수확했다.

신안 김은 향이 진하며 감촉이 부드럽고 달며, 게르마늄 성분 등 각종 미네랄 성분이 풍부해 소비자들에게 호응도가 높다.

올해 첫 출하된 햇김은 1속(100장) 당 57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지난해 첫 출하 김보다 300원 정도 낮게 거래되고 있다.

한편 신안지역 583 김 양식어가는 12만척을 시설해 1353만속을 생산, 540억원의 소득을 올릴 계획이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지방자치경영대전

신안군 '대상'

신안군이 행정안전부 주최의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대상인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는다.

군은 ▲문화관광상품 개발 ▲환경관리 ▲지역개발 등 3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올린 자치단체로 평가받았다.

군은 이번 심사에서 친환경 명품 '슬로시티'(Slow city) 육성과 병어·빨나지·왕새우·홍어·시금치·틀립 등 지역 농·수·특산물을 활용한 작은 축제를 개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물론 관광객 유치 등 차별화된 문화관광육성 전략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전국 최초의 '천사섬 분재공원' 조성과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3년 연속 수상, 갯벌 도립공원·습지보호구역·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람사르 습지 등 갯벌 습지의 보전 관리, 폐비닐·농약병이 없는 깨끗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노력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신안 천일염의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화를 통한 '세계 3대 천일염'으로 도약과 그동안 운영으로 받아들이며 살아왔던 섬 주민의 교통·식수 문제 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점도 이번 평가에 한 몫을 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난 5월 갯벌습지 보전활동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이후 또 하나의 성과"라고 말했다.

한편 시상식은 다음달 9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다. 표창과 함께 특별 교류세도 받는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절반만 결제해도 여행가능

목돈없이 떠나는~ 내맘대로 여행. 2012상반기 베스트 히트상품

해외여행 1000만명 시대
목돈이 없어 여행을 망설이신다면
여기 후불제투어 여행적금을 적극 이용하세요.

가족단위, 산악회, 단체, 직장, 성지순례, 골프, 신혼
목돈없이 계획대로 여행갈수 있습니다.

■ 후불제투어 특징

- ① 후불제여행은 매월 일정 금액을 6개월 납입후 여행을 다녀온 후 여행잔금을 매월 일정금액 나머지 금액만큼 납부하는 획기적인 후불제여행 시스템입니다.
- ② 하나투어·모두투어 원하는 여행상품을 마음대로!
- ③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1인1구좌에 한함)
- ④ 여행금액을 다 지불하고 가는 여행이 아니므로 최상의 고객만족을 실현시켜드립니다.
- ⑤ 만기시 100% 환급가능합니다.

가슴 뛰는 삶의 여정에 동참하기 위해 후불제여행을 경험 해보자.

책임감 있는 진행으로 인한 스트레스 NO!!

회원가입 월 회비 적립금 최대 360만원까지	월 회비 금액 40,000원 60,000원 120,000원	회비선택하신후 6개월 적립후 여행가능	상품 선택후 고객센터예약	적립금액+지원금액 목돈 없이 여행	여행후 잔금적립후 계약만료
--------------------------	----------------------------------	----------------------	---------------	--------------------	----------------

신뢰의 1위기업 후불제여행사, 후불제 여행민의 신뢰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직접 경험 해보세요.

(주) 후불제투어 www.hubuljetour.co.kr

회원가입 및 상담문의 1577-5978

* 고객의 회비는 공정위 할부거래법 적용으로 지정은행에서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공정위 할부거래법 2010년 9월 18일 법 시행

지사/영업직모집

■ 퇴직자, 주부사원, 알바, 재택근무
■ 지사모집 : 소자본 무경험, 여행사 운영가능합니다. (법인설립비용없음)

SCREEN GOLF

두암골프존

두암골프존 파격할인

REAL 18홀 14,000원 (연중동일)

오전(평일) 12,000원

오전 요금은 12:00시까지 티업시 적용합니다.

1. 골프존 기본형 18홀 12,000원 (연중동일요금)

오전(평일) 10,000원 (12시 티업까지)

- 편안하고쾌적한 최고시설 5개를
- 전타석 스윙플레이트
- 인순타석(와이드 화면) 구비
- 단체경기(8~10인)을 위한 OPEN형 룸

- 골프채, 신발, 장 무료대여
- 오전은 12시 티업까지 적용(토,일제외)
- 영업시간 오전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 매니아 고객님을 위한 넉넉한 라커(무료)

필드의 느낌을 그대로.. 실전과 같은 시뮬레이션 골프연습장

두암타운 사거리에서 순원도로쪽 70m [햇살 5층]

예약 ☎ 234-9999